

사랑하는 빠스또렐레에게,

오늘 선한 목자 예수 수녀회 설립 75 주년을 맞이하여 총본부에서 거행하는 미사에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전 세계, 다섯 개 대륙 열 아홉 개 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모든 수녀님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삼일 동안 준비 기도를 드리며 일치를 이루었으니, “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구원을 선포하자.”라는 표어아래 이 기쁨의 해를 지내 왔던 것을 기억하며,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낍시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스런 돌봄으로 우리를 굽어 보고 동반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수도회가 시작될 때 자신을 내어 놓고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 앞서서 걸어 온 수녀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관대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열정적으로 이 길을 걸으며 기초를 세웠기에, 현재 바오로 가족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교육하셨고 사목적 성화의 여정을 가르치고 계시며, 우리가 주님과 타인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매일의 작은 일도 넓은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자주 당부하시는 것처럼 넓은 지평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확실히 우리의 과거에 현존하여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발자취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약속하여 주심으로 미래에도 계십니다. 더구나 하느님께서서는 오늘 만날 뵈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시간 안에 당신을 드러내시고 역사의 여정 안에 현존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생명을 낳는 활동들을 선택하게 합니다. 이는 인내가 요구되고 기다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빠스또렐라와 수도회 전체는 미래는 함께 건설하는 것이라는 의식으로 더욱 더 주께 매달리고 교회와 함께 역사 안에서 걸어가며, 교회의 기쁨과 고통 그리고 수고와 희망을 더욱 깊이 느껴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도 “어머니이며 목자인” 교회와 함께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며, 예수님께서서 사람들의 상처를 돌보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달구셨던 것처럼 목자의 연민으로 이 시대의 사목적 현실에 잠겨야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줄 알고 사람들을 우리 안에 품을 줄 아는 능력을 지닌 “어머니와 목자”가 되도록 서로 도와주고, 인간 마음에 잠자고 있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하느님을 원하는 마음을 일깨우러 인류 위에 끊임 없이 내려오시는 성령의 충만한 생명을 사람들이 맛보게 합시다.

우리는 오늘 직무상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밤을 더욱 더 함께 지내며, 유일한 참된 빛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져가며, 그들을 신앙으로 동반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75 주년의 삶을 축하하는 것은 우리 빠스또렐레에게 있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수도회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오로 가족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신선함과 향기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강력하게 청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으니 성소자들의 부족이나 노령화 또는 갑자기 다가오는 병에 대하여 불평하지 맙시다. 단지 오늘 우리가 처해있는 처지가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당신 안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오늘도 젊은이들이 빠스또렐레에게 사로잡혀서 옷자락을 붙잡고 즈카리야 예언자가 선포한 것처럼 "당신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온다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알베리오네 신부님께서 1962 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서로 축하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 이 아름다운 성소에 합당한 깊은 의무감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¹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¹ PrP IX, 1962, p. 68.